

## 금속노조 2017년 중앙교섭 조인식 열어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금속산업 최저임금·일터 괴롭힘 금지 등 합의... “내년 교섭 공동위 활용하자”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11월 21일 14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17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조인식 인사말에서 “금속 노사의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 문제 때문에 조인식이 늦어져 아쉽다. 실무자 겸 교섭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노사 간 노력과 갈등이 공존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2018년 교섭은 올해보다 조속히, 잘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7년 중앙교섭은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이 노조파괴 사업장인 KEC의 노무 자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노조 요

구로 사측 교섭대표를 교체한 뒤 진행했다. 조인식도 이런 상황으로 연기됐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가 조인식이 늦어져 아쉽다고 했는데,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원인을 되짚어 보자”라며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발전한 교섭을 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만났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 노사가 지금까지 전체 노동자의 발전에 앞장섰는데 자부심을 품고 있다”라며 “내년 교섭에서 노사공동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지혜를 모으고 충실하게 내용을 채우자”라고 당부했다.

조인식에 참가한 노조와 사용자협의

회 교섭위원 전원은 2017년 금속산별협약에 연서명하고 김호규 위원장과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가 도장을 찍고 교환한 뒤 조인식을 마쳤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18일 2017년 중앙교섭 합의안에 의견접근했다. 금속 노사는 2017년 중앙교섭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금속산업 최저임금 7,600원 ▲일터 괴롭힘 금지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합의안을 8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총회 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었다. 투표 대상 조합원 19,541명 중 15,554명이 투표해 (투표율 83.31%) 찬성 13,200명, 반대 2,271명 무효 107명으로 (찬성률 84.87%)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 조직화 집중 한목소리, 사회적 대화 정치 방침 의견 갈려

민주노총 임원선거 방송 토론회...최고임금제 도입, 임원 소환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세력화 등 주장

2018년 1월부터 민주노총을 새로 이끌 9기 임원 직접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가 11월 19일 서울 마포 국민TV 스튜디오 열렸다.

기호 1번 김명환, 기호 2번 이호동, 기호 3번 윤해모, 기호 4번 조상수 등 각 후보는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놨다. 후보들은 정치방침, 조합원 조직, 조직혁신 등 민주노총의 과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차별점을 드러냈다.

## 사회적 대화 참여 방식 백기쟁명

사회적 대화의 필요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지만 참여 방안이 달랐다. ▲기호 1번은 현 노사정위 폐기 후 새 기구 구성 ▲기호 2번은 노사정 대화 반대 ▲기호 3번은 현행 노사정위원회의로 대화 참가 ▲기호 4번은 사

안별 노사정 대화를 주장했다.

## 미조직 비정규 사업에 지원 집중

비정규직 조직화에 관한 평가와 향후 민주노총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전략에 관해 모든 후보가 조직의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쏟아부어 민주노총을 2배~3배 이상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호 1번은 예산 30% 미비사업 할당과 1사 1노조 원칙 확인 ▲기호 2번은 미조직비정규 특별기금 결의 ▲기호 3번은 노사정 대화로 노조할 권리 확보 ▲기호 4번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하청 조직화와 일반노조와 산별노조 지역지부의 조직화 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조직 내 갈등 해결 구조 마련, 지도집행력 강화가 과제

민주노총의 조직혁신과제에 대해 ▲기호 1번은 정책, 교육노총화, 갈등 조정단위 구성 ▲기호 2번은 조직력 강화 ▲기호 3번은 정파운동 일소 ▲기호 4번은 대산별 로드맵 제시를 강조했다.

## 후보별 주목할 공약은

후보들은 상대가 내놓은 공약을 토론으로 검증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의 최고임금제 도입, 진보정치 대통합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의 임원 소환제, 임원·대의원 전면 직선제 도입, 청소년·노년위원회 도입 ▲기호 3번 윤해모 후보의 사회연대기금 조성 ▲기호 4번 조상수후보의 연대노총 등 사회세력화, 총파업 결정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 “복수노조 간 승진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최초 인정... 대한솔루션, 금속노조 조합원 차별·노조 비방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지난 10월 21일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한솔루션 주식회사의 복수노조 간 승진차별’에 대해 최초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 11월 21일 판정서를 보내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한솔루션분회(분회장 정재황, 아래 분회)가 대한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중노위는 “승진평가에서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이 없고, 합리적 이유 없는 승진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복수노조가 된 2011

년부터 2017년까지 금속노조 조합원은 2명이 승진했지만 기업노조 조합원은 39명이 승진했다.

정재황 분회장은 “대한솔루션은 복수노조 상황이 된 2011년 이후 인사를 무기로 지속해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차별해 왔다”라며 “승진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중노위 판결은 환영하지만, 그동안 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2016년 제기한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대한솔루션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뒤

에도 금속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유인물 등을 통해 금속노조를 비방해왔다.

이번 중노위 사건조사 과정에서 대한솔루션은 평가자는 같은데 필체와 서명이 다른 허위평가서를 조사자료로 제출해 적발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위원회법 31조(벌칙)를 위반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중노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속였다”라며 악의의 부당노동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한솔루션 사용자 형사상 처벌을 요구했다.